

육계자조금



▲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우수상(봄나들이 종중중/주기봉) 수상작

자조금소식 전문육계CEO과정 3, 4기 교육 성료
육계소식 '축산계열화법' 년내 제정될 전망
사양관리 위장관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관리방안Ⅲ



육계농가, 전문경영인으로 새롭게 거듭나

대한양계협회, 전문육계CEO과정 3, 4기 교육 성료

전국의 육계농가들이 전문경영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전문육계CEO과정이 뜨거운 열기 속에 성료됐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육계농가를 대상으로 '2011년도 전문육계CEO과정' 제3, 4기 교육을 실시했다. 3기 교육은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북 부안에 위치한 대명리조트에서 전북·전남 지역 39명의 육계농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4기 교육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한화리조트에서 경기도와 충북지역의 육계농가 19명이 참석하는 등 바쁜 일상에서도 전문경영인이 되기 위한 양계농가들의 열정이 엿보였다.

육계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문육계CEO과정 교육은 전국의 육계농가들에게 농장경영의 역량과 기업가적 자질 함량을 키워주고자 전문적인 경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였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 농장의 합리적인 경영방식을 습득하고 생산단계를 비롯해 유통과 마케팅 등을 총

망라할 수 있는 경영인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시작된 전문육계CEO과정 교육은 육계농장을 경영하는 데 있어 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만 짜여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으며 여러 지역에서 요청해 온 바 있다. 이에 충북에 이어 경북지역에서 2기 교육(2박3일 합숙교육)을 진행했고 1, 2기에 걸쳐 총 8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올해 3, 4기 교육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AI로 피해를 입은 육계농가들이 많아 AI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에 중점을 뒀다. 또한 2기 교육에 이어 3, 4기 교육에서도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육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2박3일간의 합숙교육을 실시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이민혜 박사의 '인간행동의 이해(DISC)' 강의로 시작된 교육 첫째 날, 이민혜 박사는 CEO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 중의 하나가 바로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 강조하며 행동분석





을 통해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두 번째 교육에서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조동근 사무관의 '친환경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강의를 이어졌다. 조 사무관은 국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친환경인증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앞으로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첫째 날 교육은 축산시설환경건설링 유재일 대표의 '육계사 구성과 환기' 강의로 마무리 되었다. 유재일 대표는 닭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첫째도 환기, 둘째도 환기라며 환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자연 환기와 기계식 환기의 장단점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각 농장의 환경에 맞는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둘째 날 오전교육에서는 반석가금진료연구소 손영호 소장과 바이엘코리아 윤종웅 수의사의 강의를 진행되었다. '양계질병진단 및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손영호 소장은 많은 농가들이 골치를 썩고 있는 육계의 난계대질병과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었다. 여기에 농가 스스로도 입주시 병아리의 건강상태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계농장방역관리' 강의를 펼친 윤종웅 수의사는

AI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계사를 비롯해 주변 환경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을 생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오후교육에서는 미래회계법인 김태용 이사의 '육계경영세무회계'와 글로벌NLP 권중희 대표의 '창조적 대화기법'에 관한 강의를 진행됐다. 김태용 이사는 정확한 장부기장을 강조하며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서류상의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중희 대표는 농장운영도 회사운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CEO로서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뤄져야 농장이 올바르게 운영된다고 말했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병아리의 입추에서부터 출하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핵심포인트를 짚어준 '육계사양관리'에 대한 강의를 있었다. 강의에서 (주)계흥의 유재석 대표는 육계사육이 올바르게 이뤄지기 위해선 병아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건강한 닭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육추실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계사양관리 강의를 끝으로 2박3일간의 모든 교육은 끝이 났고 이어 이번 CEO교육과정에 참가한 전체 교육생에게 수수료증을 나눠주는 것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



사조인티그레이션, 국산닭고기인증업체 선정 대한양계협회, 제6차 인증위원회서 결정

우리나라 3대 참치 통조림 회사로 알려진 사조인티그레이션이 새롭게 국산닭고기인증업체로 선정되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10월 21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제6차 국산 닭고기 인증위원회를 열고 일일 도계량 8만수를 처리하는 사조인티그레이션(브랜드명 사조로하이)의 도계장에 대해 국산닭고기인증을 부여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 17일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사조인티그레이션에 대한 현지실사 후 ‘국산닭고기인증제’ 평가표에 의거,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돼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간 사조인티그레이션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에는 국산 닭고기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통조림 참치로 유명한 사조그룹은 신수종 사업으로 축산분야를 선정하고 충남 보령의 도계장 외에 전남 함평에 총 760억 원을 투입해 일일 30만수 규모의 도계장과 가금류 가공공장을 신축 중에 있고 2014년 이후 축산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7천억 원 규모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0일에 있었던 제5차 국산 닭고기 인증위원회 전차회의록과 현장실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명지대학교 조정순 교수는 인증제 사후관리에 대해 강조하며 “인증마크 부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증제의 취지에 걸맞게 업체들이 지켜나가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라며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사후점검단을 꾸려 불시에 업체를 방문해 인증제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이광희 연구관은 “인증기간이 끝난 업체에 대해 국산닭고기인증마크가 부여된 포장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재고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인증마크 부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증제의 취지에 걸맞게 업체들이 지켜나가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

- ▶ '2011 전국 닭고기 요리경연대회' 개최를 위한 대행사 선정 경쟁 프리젠테이션이 지난 10월 26일 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닭고기 요리에 자신 있는 사람 모두 모여라!

대한양계협회, 2년 만에 닭고기 요리경연대회 개최

'닭고기 요리에 자신 있는 사람 모두 모여라' !!!

'고단백 저칼로리', 웰빙(Well Being)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닭고기를 이용한 요리의 향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닭고기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에 이어 2년 만에 '2011 전국 닭고기 요리경연대회' 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6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경연대회의 대행을 맡아 행사를 이끌어 갈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실시했다. 그 결과 경쟁 PT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배운자 제과제빵 요리학원이 닭고기 요리경연대회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육계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2011 전국 닭고기 요리경연대회' 는 오는 12월 중 열릴 예정으로 2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닭고기 요리에 관심이 많은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대한양계협회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레시피를 이용해 보다 쉽고 간편하게 닭고기 요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 후 관련 요리책자 및 자료집을 제작해 요리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소비촉진과 생산기반확대 효과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닭고기 요리대회의 주제는 ▲닭고기를 주재료로 한 웰빙 저지방 고단백 요리 ▲외식상품화로 일반 판매가 가능한 닭고기 요리 ▲향토전통요리, 퓨전요리, 새로운 닭고기요리 등 다양한 요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닭고기 요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신청이 가능하지만 프로요리사를 가리는 요리경연대회가 아닌 만큼 전문 요리사의 참가신청은 받지 않을 예정이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은 "이번 전국 닭고기 요리경연대회는 참가자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국산 닭고기 소비촉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재능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웰빙 다이어트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닭고기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나오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





‘축산계열화법’ 연내 제정될 전망 김학용의원 주최, 공청회 개최... 농가·계열주체 의견수렴

계열화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계열업체와 농가간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축산계열화법 제정’을 앞두고 농가와 계열업체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축산계열화법은 연내 법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경기도 안성)의 주최로 지난 10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려 육계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육계농가를 대표해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 농림수산식품부 노수현 축산경영과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박사, 한국계육협회 김옥성 부회장, 건국대 김정주 교수 등이 참석해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노수현 축산경영과장은 공청회에 앞서 ▲축산계열화 사업과 사육 경비 정의, 적용 대상 ▲가축 출하 20일 이내 경비 지급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고시 ▲계열업체와 농가의 준수사항, ▲모범사업자 지정 및 지원 ▲분쟁조정위

원회 설치 ▲계약농가협의회 등 축산계열화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축산계열화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리했다.

축산계열화 사업과 사육 경비 정의, 적용 대상

축산계열화 사업법 적용 대상은 부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은 계열업체와 축산농가가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가축·사료의 품질기준, 사육경비의 지급기일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 계열업체와 농가는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육경비의 지급과 관련, 계열업체가 농가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가축의 출하를 완료한 날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서 최단기간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

른 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법률안 제정 시 생산(위탁사육)계약과 유통(매매)계약으로 반드시 세분화해 명시해야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농가와 계열업체가 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율 표기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축 출하 20일 이내 경비 지급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고시

축산계열화법에서는 닭을 출하한 날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사육농가에게 현금지급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계열업체에서는 경기가 나빠질 경우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게 되고 사육경비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됐다. 반면 농가입장에서는 계열업체에서 사육비를 원활하게 지급하지 않게 되면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농가들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축산계열화법에는 병아리 품질 등과 관련한 사육비 보전 문제 등 농가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있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추가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열업체의 경영상황이 어려워 농가에게 사육비 지원이 당장 어려울 경우 축발기금 등을 통한 융자 지원 제도가 마련 돼야 하고 계열사의 부도 시, 사육경비에 대한 제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계열업체와 농가의 준수사항

계열업체와 농가의 준수사항에 대해 축산계열화법에는 계열업체의 의무사항만 열거되어 있고 사육농가들이 지켜야 할 사육시설 기준 등은 모두 빠져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육계의 경우 계사시설이 무창, 유창, 보온 덮개 등 각 농가마다 달라 각각에 대해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통일된 사육시설 기준을 마련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모범사업자 지정 및 지원

농림수산물부에서는 모범사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계열업체 중에서 농가와와 상호협력 등에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해야 하고 모범사업자에게는 정부의 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포상 등 인센티브의 혜택을 주고 이에 앞서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표준계약서의 준용 여부와 정보 제공 등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이날 공청회에서는 계열업체와 농가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인 농림수산물부에서는 '중앙조정위원회'를, 각 지방자치 단체인 시·도에서는 '지방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경우 농가와 계열업체 간의 분쟁 발생 시 1차적으로는 관할 지방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에 불복할 시에는 중앙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분쟁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해당 위원을 피할 수 있어야 하고 분쟁의 조정 및 효력은 계열사와 농가 간의 분쟁 발생 시 계열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시·도지사는 조정위원회 개최 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분쟁사항에 대해 심의한 후 조정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령하며 만약,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또한 분쟁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결정한다. 이밖에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계약내용 위반, 사육경비 미지급, 준수사항 위반자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계약농가협의회

농가가 계열업체와 상호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간의 신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약농가 스스로 농가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농가측은 이 농가협의회가 계약내용, 가축·사료 등의 품질에 대하여 농가를 대표해 계열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계열사는 농가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축산계열화법 법률안 주요 내용

총 7장 34개 조항으로 구성



제1장(총칙)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로 구성되었는데 축산계열화 사업을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경영하는 사업으로 현재의 육계계열화 사업형태에 맞게 정의하였다.

제2장(계약 및 준수사항)

제2장은 계약 및 준수사항으로 계약서의 작성, 사육경비의 지급, 기타 준수사항을 언급하였다. 계약서의 작성에는 농식품부장관이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 이를 준용하여 계열업자와 농가는 계약서를 작성, 활용토록 하였다. 특히, 지급기일을 가축을 출하한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지급기일은 협의 중)이내에서 최단기간 지급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지급이 늦어질 경우 이자율이 가산되고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등 공정한 상거래를 유도하여 불만사항을 줄이도록 하였다. 또한, 농가에게 일방적인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은 금지토록 하였다.

제3장(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

제3장에는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이 명기되었다. 농식품부장관은 농가와와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 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모범사업자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 놓았다.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자는 입장도 있어 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제4장(분쟁조정 및 분쟁조정위원회)

그 동안 계열사와 농가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 농가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4장에는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명기되어 있다, 이는 계열화 사업자와 농가간의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식품부내에 '중앙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분쟁 발생시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만약 분쟁 발생시 30일 동안의 자체 조정기간을 두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권고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게 된다. 14일간 이의 신청이 없으면 기각되고 각각 시정과 조정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제5장(계약사육농가협의회 및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현재 계열사에는 농가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서로간의 협력이 완벽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제5장은 계약농가협의회 및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계약농가는 스스로 농가협의회를 설치하되, 계약내용 등에 대해 농가를 대표하여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하는 기구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계열사와 농가를 대표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소 연1회 이상 정기적인 회의를 거쳐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토록 유도하였다.

제6장(보칙), 제7장(벌칙)

제6장과 제7장은 보칙과 벌칙으로 생산조절과 출하조절을 상호 협의하에 협조토록 하였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관심을 갖도록 했다. 계열화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등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다. 🍅



아시아지역, AI 재유행 가능성 높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 경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겨울에도 아시아 지역에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9월 홈페이지를 통해 베트남과 중국에서 기존 AI 백신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새로운 변종 AI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 올 가을과 겨울 사이 아시아에서 고병원성 AI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에서 발생된 변종 AI 바이러스는 철새의 이동에 따라 가장 인접한 나라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에도 급속히 확산될 수 있어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시점에서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후안 루브로스 FAO 동물질병국장은 발표에서 북부 및 중부 베트남에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면서 "태국, 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 등에도 새로운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난해와 같이 AI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AI 바이러스는 2006년 63개 국가에서 4천건이 넘는 발병 기록을 남기는 등 절정을 이룬 뒤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와 중국,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발병 가능성을 남겨 놓고 있었다.

이후 2008년 야생 조류가 이동하면서 기존에 병이 발견되지 않았던 국가에서 다시 발병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다. FAO에 따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불가리아, 루마니아, 네팔, 몽고 등이 최근 감염 사례가 발견된 새로운 국가들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AI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4억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 당해 200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AI 재발 방지를 위한 가금 농가 차단방역 준수사항



이기중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지난 2008년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2년 만인 2010년 12월 29일~2011년 5월 16일(139일간)까지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어 국내 가금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금번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조기 종식을 위하여 가금농가, 관련협회, 방역기관 관계자로 'AI 차단방역을 위한 T/F 팀'을 구성하여 매일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서 도출된 차단방역 조치사항을 신속히 조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또한 가금농가, 관련협회, 지자체 등에서도 AI 조기 종식을 위한 차단방역 조치 사항을 휴일도 없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많은 협조로 2011년 9월 5일 AI 청정화를 선언하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금년에 발생한 AI는 지난 2003/2004년, 2006/2007, 2008년과 비교 한다면 그 어느 해보다 발생 건수 및 발생 기간이 길어 차단방역을 이행하는데 많은 어

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차단방역에 투입되는 인력, 기자재 등 지원에 애로 사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표1 참조>

금번 AI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2003/2004년, 2006/2007년, 2008년과 같이 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역학조사위원회 중간조사결과 발표, 2011년 2월 7일 최종 발표 8월 31일)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2010년 11월 26일~2011년 2월 13일까지 전남 해남, 전북 익산, 경기 평택, 울산 울주 등 7개 시·도의 야생조류·수거분변에서 H5N1이 20건 분리되었고, 야생조류 분리 바이러스와 국내 발생농장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결과 동일한 그룹(HA 유전자군 2.3.2 그룹)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야생조류 발생지역 인근 가금농가에서 발생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010년 일본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도 일본의 역학조사 결과(8월 30일 발표)에 따르면 야생조류에 의한 것으

<표 1> 우리나라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 2003년, 2006년, 2008년 및 2010.12월에 걸쳐 4차례 발생하였음

구분	2003/2004년	2006/2007년	2008년	2010/2011년
시기	겨울철 (2003. 12. 10~2004. 3. 20) (102일간)	겨울철 (2006. 11. 22~2007. 3. 6) (104일간)	봄철 (2008. 4. 1~2008. 5. 12) (42일간)	겨울철 (2010. 12. 29~2010. 5. 16) (139일간)
지역 및 건수	10개 시·군 19건 (닭 10, 오리 9)	5개 시·군 7건 (닭 4, 오리 2, 메추리 1)	19개 시·군·구 33건 (닭 21, 오리 6, 닭·오리 복합 6)	25개 시·군 53건 (닭 18, 오리 33, 메추리 1, 평 1)
방역조치	• 392농가 5,285천수 매물 • 2004. 5. 29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 2004. 9. 21 청정국 선언 (6개월 후)	• 460농가 2,800천수 매물 • 2007. 5. 2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 2007. 6. 18 청정국 선언 (3개월 후)	• 1,500호 10,204천수 매물 • 2008. 6. 29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 2008. 8. 15 청정국 선언 (3개월 후)	• 286호 6,473천수 매물 • 2011. 7. 3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 2011. 9. 5일 청정국 선언 (3개월 후)
유입추정	야생조류	야생조류	야생조류	야생조류
피해액 (살처분 보상금 등)	1,531억 원	582억 원	3,070억 원	약 804억 원(추정)

로 추정하고 있다. 그 외 원인으로는 감염된 철새 등의 분변에 의해 오염된 남은 음식물 급여를 통한 유입, 오염농장을 출입한 사료·왕겨차량 및 농장 간 출입자 등에 의한 전파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야생조류의 농가 접근을 철저히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아울러 가금농가 종사자의 농가 주변 철새 도래지(소하천 포함) 출입금지, 사육 시설 소독 강화, 남은 음식물 보관 철저 등의 차단 방역 조치도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야생조류의 농가 접근 및 가금 접촉 방지'를 위해서는 ① 사육 시설 주변 및 농장 부지의 경계에 2~3m 폭으로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소독효과 및 쥐 등의 야생동물에 대한 기피 효과), ② 사육시설 주변의 먹잇감(곡물 등)을 방치하지 않는 등 청결 유지, ③ 사육시설, 사료보관시설에는 야생조류 침입방지 차단망(2cm)을 위에서부터 덮어지도록 넉넉하게 설치하고 수시로 손상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시 즉시 수선, ④ 사육 시설 내 쥐의 침입방지를 위한 간극, 틈새 등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포획장치도 설치, ⑤ 사육시설 출입 시 즉시 출입문을 차단 등의 야생 조류 차단 조치 사항을 필히 준수 하여야만 한다. 특히, 불가피 하게 철새도래지(소하천 경우 등)를 방문한 경우에는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눈·발에 출입시장화 등에 분변이 묻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기 바란다.

둘째, 사육시설 내·외에서 사용하는 장화는 장소별로 구분하여, 최소한 3켄레(축사 내, 축사간 이동시, 외출용)를 준비하여 사용토록 하고, 축사시설 입구에 소독조 필히 설치 및 운영(소독약품이 메마르지 않도록)을 하고, 아울러 축사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도구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사육시설에 전체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소독하여 주기 바란다.

셋째, 남은 음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이다.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주기 바란다. 불가피하게 급여 할 경우에는 열처리(100℃ 30분)하여 급여하여야 하며, 특히 남은 음식물을 사육시설 내에 방치하지 말고 밀폐된 용기 등에 보관하여 야생조류, 쥐 등과의 접촉을 금해야 한다.

넷째, AI 발생 시 타 농가로 전파되는 수평적 요인인 출입자(특히 외부인 등), 차량(사료·가축·분뇨 등)에 대하여 철저한 소독실시 뿐만 아니라 출입 기록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만 한다. 아울러 AI 발생 시 발생농장은 물론이고 비 발생 농가 등 타 농가와와의 접촉을 금지하여 주기 바란다.



다섯째, 소독약품 사용법을 준수해야 한다.

금번 AI 발생 기간 동안 가금 농가를 점검한 결과 일부 농가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약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소독약을 첨가하지 않은 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소독약 사용 시 유효기간, 희석비율 등을 준수하여 소독하여야만 소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일 닭 등에 대한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방역기관(1588-4060·9060/1666-0682)에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 신고 자체를 지연할 경우 추후 보상금에 대한 불이익 뿐 만 아니라 AI 확산의 주요인이 되기도 한다.

AI 재발방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금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의 방역의식이라고 생각된다. 내 농장은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지켜 줄 수 없다는 철저한 주인 의식만이 국내 가금시장을 더 나아가 품질 좋은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대책이라고 하겠다.

정부에서도 기존 농가신고에 의존하던 수동적 예찰을 AI 발병 전에 미리 찾아내는 능동적 사전 예찰로 개선(농가 예찰요원 운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AI 발생 원인이 야생조류로 추정됨에 따라 야생조류 포획 검사도 연차적으로 확대[(2010) 1,600수 → (2011) 2,000수 → (2012) 2,700]하여 검사함으로써 사전에 AI 발생요인을 차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향후 AI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그간 유입경로 등 역학조사 및 방역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련 단체 및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나갈 것이다.

AI 재발방지와 청정국 유지는 정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때 지켜낼 수 있는 것임을 금번 AI 발생에도 확인된 바, 가금농가 및 정부가 혼연의 힘을 합쳐 AI 차단방역을 실시한다면 AI 재발은 없을 것이다. 🍅

위장관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관리방안 Ⅲ



김동욱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위장관의 주요 역할은 섭취한 사료를 소화, 흡수하여 닭에게 필요한 영양소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조와 형태는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한다면 사료의 형태 및 그 성분 변화를 통해 위장관의 환경, 형태, 발달 양상 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섭취된 사료는 위장관을 통과하며 소화효소 및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관 운동을 조절한다. 또한 위장관 pH나 미생물총을 변화시킬 수도 있으며 사료를 통해 얻어진 영양소와 에너지는 위장관을 발달, 성숙,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기질로 이용된다. 반대로 사료 내 항영양인자나 독소 물질은 위장관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닭이 섭취한 사료는 직·간접적으로 위장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료적 요인의 변화를 통해 위장관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닭의 위장관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료적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질의 사료원료 사용

사료 내 난소화성 물질이나 항영양인자는 유해균의 영양소 기질로 이용되거나, 위장관 점막 및 상피세포에 손상을 입혀 위장관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소화효율이 높고 항영양인자 및 난소화성 성분이 적은 양질의 사료를 사용함으로써 위장관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전곡(whole grain cereals) 사용

배합사료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육계 사육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옥수수나 보리 알갱이를 분쇄하지 않고 통으로 급여하면 근위 등 소화관 운동을 자극하고 기계적 분쇄를 증진시켜 사료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대다수의 육계농가에서는 크럼블이나 펠렛 사료를 급여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효과를 얻고 있을 것이다.

사료 가공 및 멸균 처리

펠leting, 익스트루전과 같은 사료 가공을 통한 기호성 및



소화율 개선, 먼지 발생 예방, 영양소의 고른 섭취 등의 효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일부 사료업체에서는 멸균 시설을 설치하여 멸균사료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적절한 열처리하는 사료원료 내 항영양인자의 활성을 낮추고, 유해균을 사멸시켜 위장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균제, 효소제, 유기산제 등 사료첨가제의 사용

현재 항생제 대체제로 개발·사용되고 있는 미생물제, 프리바이오틱스, 유기산, 효소제, 식물추출물 등은 영양소 이용률 증진, 병원성 미생물 및 유해균 제어, 장내 미생물총 안정화 및 장내 환경 개선, 면역 증진 등의 효과를 발휘하여 닭의 위장관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용기전은 위장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들의 작용기전, 주요 효과 및 사용방법을 <표 1>에 간략히 제시하였다.

올해 7월 1일부터 배합사료 제조용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된 후, 괴사성 장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오늘날 집약적이고 대규모화된 육계산업에서 닭은 다양한 스트레스와 위해 요인에 노출되어 있고 이를 항생제로 제어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육계산업에서 이들의 사용 금지 및 배제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사료용 항생제가 닭의

〈표 1〉 주요 항생제 대체제 작용기전 및 사용방법

구분	내 용	구분	내 용
미생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유익한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 및 배양물 종류 : Lactobacillus속, Streptococcus속, Bifidobacterium속, Bacillus속 및 효모 등 작용기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내 집락부위 및 영양소 경쟁을 통한 유해균의 경쟁적 배제 유기산, 비타민, 효소, 미지성장인자 및 항균물질 생산 장내 환경 개선 및 장관 면역 활성화 장관 및 장점막 자극을 통한 장관 발달 사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추, 사료교체시 급여하여 유익균이 장관 내 우점을 취할 수 있게 한다. 	유기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고 위장관 pH를 조정하는 산성을 띠는 유기화합물 종류 : 초산, 낙산, 젖산, 구연산, 푸마르산, 소르빈산 등 작용기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 내 유해균 및 곰팡이 억제 위장관 pH 조정을 통한 장내 미생물총 안정화 및 영양소 이용률 개선 사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균, 항곰팡이 효과로 여름철 사료 및 음수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복합 유기산제이므로 유기산 종류 및 조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효소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 내 영양소 이용 증진을 위해 공급하는 외인성 효소 종류 : protease, lipase, cellulase, mannase, pectinase, phytase, xylase 등 작용기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 내 항영양인자 및 난소화성 물질을 분해를 통한 영양소 이용률 개선, 위장관 질환 발생 감소 및 유해균의 대사기질을 고갈 장 점도 감소를 통한 소화물의 장관 통과 시간 조절 사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의 배합사료 내 이미 첨가되어 있고 첨가량이 적기 때문에 농가에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식물추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산화, 항균, 면역 조절 등의 생리활성효과가 있는 식물체 및 추출물 약용식물, 산야초, 허브, 초목 등 국내외 식물 추출물 작용기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욕 및 소화 촉진, 장관 내 병원균 증식 억제를 통한 장관 안정화 체내 대사조절, 산화적 스트레스 저감 및 면역조절 등 사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성장이 왕성하고, 계사 환경이 악화되는 사육 후기 체내 대사조절, 산화적 스트레스 감소 등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식욕촉진, 항산화 활성, 스트레스 저감 효과가 우수하여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프리바이오틱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닭에서 소화되지 않고 위장관 내 일부 제한된 특정 미생물 생장이나 활성을 선택적으로 촉진·억제하여 가축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난소화성 물질 종류 : MOS, FOS, 이눌린, 유과올리고당, 락툴로스 등 작용기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내 유익균의 성장 및 증식을 위한 대사기질로 작용 특정 유해균과 결합하여 배설시킴으로 장내 미생물총의 안정화 장관 상피세포 및 점막 자극을 통한 장관면역 발달 사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 발생, 계사 이동 등 장내 환경 변화 가능성을 있을 때 미생물제와 함께 공급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면역증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닭이 본래 가지고 있는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질병저항성을 높여주는 물질 렉틴, β글루칸, 에키나시아 등 작용기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분자 다당체나 당단백질로 면역세포 자극을 통한 활성화 및 분열촉진 닭의 면역기능 활성화로 병원균이 침입시 질병 피해 감소 사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신 접종 및 질병 발생 우려시 면역증강제를 급여하면 항체 형성 및 면역반응 증진을 통해 백신 효율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생산성 향상과 건강성 증진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내·외부 미생물의 제어를 통한 위장관 관리에 있기 때문에 항생제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위장관을 효율적인 관리한다면 항생제 사용 배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동안 놓치고 지나갔던 부분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게 되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육계 산업이 태동한 이래, UR 타결, WTO 체제, FTA

체결, 조류인플루자 발생, 사료가격 폭등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이들을 기틀로 삼아 성장·발전해온 것이 우리 육계 산업이고, 이것이 우리의 저력이라고 생각한다.

사료, 사양, 질병, 환경 관리 모든 부분에서의 종합적이고 전범위적인 관리를 통해 항생제 배제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면 우리 육계산업은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될 것이다. 🍀

개인 육계자조금 납입 현황

(단위 : 원)

10 월	이름	농장명	금액(누계)	주소
	김광영	한마음농장	195,000(195,000)	전남 영광군 시종면
	김대현		52,500(52,500)	
	김영섭	조산농장	180,000(380,000)	전북 김제시 만경읍
	김영세		188,000(311,570)	
	김운태		137,850(276,330)	
	김종철		90,000(90,000)	
	박현서		84,000(84,000)	
	변상진	익산농장 1농장	171,000(171,000)	전북 익산시 여산면

10 월	이름	농장명	금액(누계)	주소
	변준석	찬송농장	150,000(600,000)	전북 남원시 보절면
	변해귀	익산농장 2농장	149,400(149,400)	전북 익산시 여산면
	서순호		96,000(96,000)	
	서승호	해뜨는 농장	100,000(100,000)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신현구		176,070(176,070)	
	이현종		100,000(100,000)	
	정운광	다운농장	117,000(237,000)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계열사 육계자조금 납입 현황

(단위 : 원)

도계장	이름	금액(누계)	주소
마 니 커 7 월	구본선	103,410(440,160)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김대북	80,160(415,980)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김동호	65,220(311,910)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김명호	137,520(607,320)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김미자	83,100(83,100)	충북 청주시 금릉동
	김상진	124,230(548,040)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김용현	162,900(690,143)	충북 괴산군 청천면
	김정국	141,780(558,180)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김종례	65,220(454,590)	강원도 홍천군 남면
	김종범	123,900(123,900)	경북 상주시 사벌면
	김주민	80,010(506,790)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마상완	113,625(493,68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박규덕	143,940(669,750)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박종열	82,890(178,680)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박현경	110,580(515,430)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백종태	128,925(290,475)	경북 김천시 대항면
	신금호	110,150(510,895)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신정호	130,950(600,375)	충북 보은군 수한면
	안중규	57,150(168,765)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윤세영	99,306(147,906)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이갑표	124,380(537,600)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이계표	147,000(603,180)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이상철	59,250(474,465)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이원규	29,880(29,880)	충북 괴산군 감물면
	이종희	121,590(562,800)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장덕기	81,510(347,790)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정재원	55,500(442,500)	경북 문경시 호계면
	정춘기	20,280(77,340)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채선희	233,070(857,940)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체리 부로 8 월	가순옥	113,190(223,710)	충남 태안군 태안읍
	강희석	77,580(153,900)	충남 당진군 고대면
	구재노2농장	54,540(98,610)	충남 서천군 시초면
	권순철	82,740(82,740)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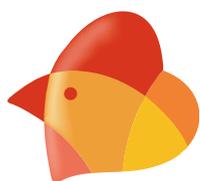
도계장	이름	금액(누계)	주소
체리 부로 8 월	권용순	202,800(202,800)	경남 합천군 대병면
	권혁부	148,092(344,052)	경북 상주시 사벌면
	김경선	139,470(367,590)	전북 정읍시 소성면
	김상진	101,010(221,850)	경북 안동시 일직면
	김선용	159,930(494,700)	충남 서산시 운산면
	김선철1농장	78,900(78,900)	전남 나주시 다도면
	김선철2농장	76,830(76,830)	전남 나주시 다도면
	김세현	92,760(186,300)	충북 진천군 덕산면
	김연희(여주)	98,520(98,520)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김영기	52,500(297,660)	경북 상주시 낙동면
	김영기	160,170(457,830)	경북 상주시 낙동면
	김재광	164,280(513,390)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김지영	72,000(72,000)	전남 영암군 시종면
	김필레	132,600(397,500)	전북 김제시 봉남면
	김현옥	151,560(477,570)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노재운	132,150(132,150)	경북 상주시 낙동면
	맹주문	124,950(355,260)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박근석	117,240(117,240)	전남 무안군 일로읍
	박노수	92,235(201,495)	충남 보령시 청소면
	박맹철	119,160(119,160)	전남 영암군 상호읍
	박명수	145,560(145,560)	충북 충주시 안림동
	박수만	207,000(792,138)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박원모	179,040(352,320)	전북 완주군 봉동읍
	박입수	177,750(534,360)	충남 서산시 부석면
	박정식	131,040(511,170)	경북 상주시 공성면
	박창운	191,340(191,340)	전남 나주시 다시면
	백옥희	75,060(231,270)	충남 홍성군 은하면
	송영대	202,260(323,070)	충남 홍성군 홍동면
	송하정	26,640(26,640)	충남 청양군 대치면
	신영철	96,420(285,810)	충남 당진군 고대면
	신은옥	230,880(475,950)	경북 의성군 단일면
	신인수	114,840(384,120)	충남 서산시 부석면
	심재수	113,940(113,940)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도계장	이름	금액(누계)	주소
체리부로 8월	안상기	60,300(291,780)	충북 충주시 양성면
	안재숙	78,690(143,400)	충남 서산시 부석면
	양상순	129,990(506,160)	충북 보은군 탄부면
	오민현	175,212(175,212)	경남 산청군 산청읍
	유영곤	72,840(144,840)	충남 서산시 운산면
	윤춘섭	120,795(229,695)	충남 태안군 안면읍
	이교완	34,560(101,280)	충남 부여군 내산면
	이동관	138,450(138,450)	전남 함평군 손불면
	이동용	193,320(793,950)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이만구	146,400(599,550)	충남 예산군 고덕면
	이운선	109,920(109,920)	충남 당진군 순성면
	이민관	113,910(113,910)	충남 태안군 안면읍
	이민호	79,800(152,430)	충남 당진군 고대면
	이복	109,470(308,850)	경북 칠곡군 석적읍
	이상석	81,720(249,810)	충남 서천군 서면
	이용균	277,350(835,710)	충북 괴산군 연풍면
	이유순	99,960(415,29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재형	139,200(576,990)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이정숙	107,880(107,880)	전북 진안군 부귀면
	이창환	142,050(290,130)	전남 영광군 군서면
	이학로	31,200(279,030)	충남 서산시 부석면
	이홍재	237,900(470,760)	충남 당진군 고대면
	임운채	218,850(887,340)	전북 고창군 아산면
	장금일	369,222(414,222)	전남 함평군 손불면
	정길영	87,636(263,526)	충남 예산군 대술면
	정덕영	45,180(368,610)	충남 예산군 오가면
	정세영	162,090(309,360)	충남 부여군 은산면
	정순님	233,730(451,170)	전남 함평군 대동면
	정연홍	89,130(267,570)	충남 서산시 팔봉면
	정은숙	234,780(234,780)	전남 함평군 손불면
	정정환	85,020(277,230)	충남 서산시 대산읍
	정혜완	49,380(104,370)	충남 홍성군 홍동면
정현구	66,960(201,660)	충남 서산시 인지면	
조병숙	94,500(94,500)	경북 의성군 금성면	
조현성	56,880(124,980)	충남 천안시 풍세면	

도계장	이름	금액(누계)	주소
체리부로 8월	차영호	59,460(187,110)	경북 상주시 사벌면
	채영희	194,490(367,560)	충북 괴산군 장연면
	최기수	78,840(341,430)	강원도 홍천군 서면
	최원술	159,180(475,560)	경기도 안성시 중리동
	함영진	89,100(89,100)	강원도 홍천군 남면
	허상근	170,310(512,490)	경남 함천군 가회면
	홍석희	61,410(418,350)	충북 진천군 초평면
	황승용	98,790(279,750)	충남 당진군 석문면
농협 무우촌 8월	박경애	59,499(172,311)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오정길	294,939(3,057,810)	경북 영천시 매산동
	박유경	99,255(446,100)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변윤규	89,613(89,613)	충북 청원군 내수읍
	오정길	201,546(3,259,356)	경북 영천시 매산동
	최병용	84,126(84,126)	충북 음성군 소이면
	정충환	192,627(758,169)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유승목	91,362(188,316)	충북 음성군 소이면
	조병기	80,274(337,902)	충북 괴산군 문광면
	오정길	137,205(3,396,561)	경북 영천시 매산동
	김의겸	176,778(356,481)	충남 천안시 동남구
	김성노	83,832(127,293)	전북 군산시 미룡동
디엠푸드 8월	황봉서	78,132(316,512)	충남 연기군 소정면
	조이종	30,954(61,281)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영천	37,068(279,711)	경북 영천시 문외동
	대구	26,007(402,900)	대구 달서 대천
	오혜진	7,767(66,264)	충북 청원군 가덕면
	김인종	28,542(75,970)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박용보	38,700(203,850)	경북 상주시 사벌면
	윤대원	27,660(27,660)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이강식	82,500(82,5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이문자	64,140(64,140)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이성희	92,100(374,370)	경북 상주시 청리면
	이원규	71,160(166,560)	충북 괴산군 감물면
임달주	20,160(20,160)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정경희	48,960(178,950)	충남 예산군 고덕면	
지구환	119,070(223,620)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자조금 납부는 육계산업의 발전에 쓰입니다.

자조금납부에 참여해주신 농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계의무자조금은 2009년 6월 1일부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육계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라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육계자조금은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져 농가들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육계자조금 납부 현황은 소식지와 육계자조금 홈페이지(www.ichicken.or.kr) 자조금 납부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계자조금

비매품 / 제3권 제11호 통권25호 / 등록번호 서초 라00269 / 발행 2011년 11월 15일 / 발행인겸 편집인 이준동 / 발행처 (사)대한양계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5층, Tel : (02)588-7651, Fax : (02)588-7655 / 인쇄처 삼원정판사 / 편집 인포아트 /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Tel : (02)585-9974 Fax : (02)585-3548

육계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거출시작일 :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 육계 3원, 삼계 1.5원, 재래닭 4.5원, 육용종계 30원(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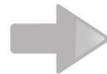
농가직접납부계좌번호 :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농가출하

육계, 삼계, 재래닭, 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거출금 징수 위탁(도계장)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제19조제2항)



농가 직접 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징수)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까지)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도계장)

